현행 문장 부호의 미비점과 대안

임동훈
한림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1. 서 론

문장 부호 규정은 국어 어문 규정 중에서 유일하게 해설이 없다.[1] 그리고 1988년에 현행 규정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용례조차 제시되지 않았다. 또 문장 부호 규정은 어문 규정의 일부이기는 하나 본문에 포함되지 못하고 한글 맞춤법의 부록으로 처리되어 있다. 이는 북한이 초기부터(1948년 규정부터) 문장 부호를 본문에 포함시킨 것과도 대비된다.[2] 한마디로 문장 부호는 문자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관심이 매우 적었던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장 부호에 관한 더 큰 문제는 이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다는 것보다 이에 관한 규정이 국어의 현실과 잘 맞지 않거나 문자 생활의 지침 노릇을 제대로 못한다는 데 있다.[3] 현재의 문장 부호 규정은 그 체계와 명칭에서 세부

1) 1988년에 국어연구소에서 펴낸 '한글 맞춤법 해설'에도 문장 부호에 관한 해설은 없다.
2) 1966년 규정부터는 문장 부호에 관한 규정이 '문장 부호법'으로 따로 독립되었다.
3) 문장 부호는 저자의 의미를 분명하게 하고 독서의 편의를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저자의 주관적 문체를 드러내는 데도 다양하게 기여한다. 요컨대 문장 부호의 쓰임에서는 일정 정도의 주관성도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관성은 자칫 자의적

내용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산재해 있다. 따라서 출판계나 학계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문장 부호의 개정이나 보완을 요구해 왔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1996년과 1998년에는 문장 부호에 대한 개정안이 마련되기도 하였으나[4] 문장 부호 규정이 한글 맞춤법에 속해 있는 관계로 문장 부호의 문제와 한글 맞춤법의 문제가 섞이면서 개정 작업이 결실을 보지 못하였다.

본고는 이러한 과거의 문장 부호 개정 작업의 연장선상에서 현행 문장 부호 규정이 어떤 점에서 문제를 안고 있고 어떤 개선책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을 보완하고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남북한 문장 부호 규정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 그리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외국의 문장 부호 규정은 어떠한지를 함께 고찰하기로 한다.[5]

2. 체계와 명칭의 문제

현행 규정은 문장 부호를 크게 7가지로 나누어 (1)에서 보듯이 마침표 아래 온점(.), 물음표(?), 느낌표(!)를 한데 묶고 쉼표 아래 반점(,), 가운뎃점(ㆍ), 쌍점(:), 빗금(/)을 한데 묶고 있다.

(1) 가. Ⅰ. 마침표[終止符]
1. 온점 (.) 2. 물음표 (?) 3. 느낌표 (!)

으로 흘러 독서를 방해할 수도 있으므로 일정한 원리에 의해 통제될 필요가 있다. 여기서의 지침이란 이러한 원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4) 국어정보학회(1996)과 국립국어연구원(1998) 참조.

5) 본고에서 자료로 이용하는 남북한의 철자법 자료는 다음과 같다. 북한의 철자법 자료에 대한 설명은 임동훈(2002) 참조.
남한 자료: 한글 마춤법 통일안(1933), 한글 마춤법 통일안[고친판](1937), 개정한글 맞춤법 통일안: 새판(1940), 한글 맞춤법 통일안: 한글판(1948), 개정한글 맞춤법 통일안: 용어 수정판(1958), 한글 맞춤법(1988).
북한 자료: 조선어신철자법(1948/1950), 조선어철자법(1954), 조선말규범집(1966), 조선말규범집(1988).

나. Ⅱ. 쉼표[休止符]

1. 반점 (,)　2. 가운뎃점 (·)　3. 쌍점 (:)　4. 빗금 (/)

이러한 체계는 맞춤법사에서 획기적인 일로서 1933년의 '한글 마춤법 통일안' 이래 한 번도 채택되지 않은 방식이다. 1933년 안에서는 비록 문장 부호에 대한 이름이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마침표(여기서는 고리점)[6]가 1번, 물음표가 9번, 느낌표가 8번에 배치되어 세 부호가 따로 취급되었으며, 문장 부호에 대한 이름이 제시된 1940년 안부터 현행 규정 이전까지는 마침표가 온점(.)만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쌍점이나 빗금이 쉼표의 일종이고 문장 중간에도 쓰이는 느낌표와 물음표가[7] 마침표의 일종이라는 현행 규정은 역사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온점, 물음표, 느낌표를 마침표로 묶고 반점, 가운뎃점, 쌍점, 빗금을 쉼표로 묶는 현행 규정의 체계는 명칭 쪽에서도 불합리한 점이 발견된다. 즉 현행 규정은 '.'에 온점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에 반점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러한 명칭은 다른 명칭들과 달리 문장에서 발휘하는 해당 부호의 기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철저히 부호의 모양을 따라 정해졌다는 점에서 불합리해 보인다.[8] 온점이란 명칭은 1940년 안에서 처음 제시되었는데, 이때에도 문장 부호의 명칭으로는 마침표가 쓰이고 인쇄상의 이름으로만 온점이 쓰였을 뿐이다.[9] 이는 ' " ' 부호에 대해 문장에서 쓰는 이름으로 '따옴표'를 쓰고, 인쇄

---

6) 1933년 안은 세로쓰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7) 다음 예 참조.
우리 집 고양이가 외출(?)을 했어요.
이 소설은 이광수(1892-?)의 대표작이다.
그리하여 그는 끝내 정복자(!)가 되었다.

8) 물론 쌍점이나 빗금의 경우도 해당 부호의 기능을 고려하지 않은 명칭이기는 하나 이 경우는 이 부호의 기능이 한 가지로 뚜렷하게 부각되지 않는 사정과 관련이 있다.

9) 1940년 안에서는 문장 부호의 명칭에 대해서 문장에서 쓰이는 이름 외에도 인쇄상의 이름도 제시하고 있다. 이는 1940년 안이 '문장 부호' 대신에 '부호'라는 제목을

상의 이름으로 '게발톱점'이란 용어를 쓴 것과 같다.

체계 및 명칭과 관련된 또 다른 문제는 괄호와 드러냄표에서 찾아볼 수 있다. 현행 규정에서는 괄호를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로 나누었다. 이는 따온 말 가운데 다시 따온 말이 있을 때 작은따옴표를 쓴다는, 즉 큰따옴표로 인용된 부분 안에 작은따옴표를 쓴다는 규정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10] 그러나 괄호 중에서 중괄호는 소괄호나 대괄호와 함께 쓰이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대중소를 따지기 곤란하고, 소괄호와 대괄호도 소괄호가 대표적인 괄호이고 대괄호가 좀더 특수한 용법을 갖는 괄호라는 점에서 같은 층위에서 대소를 따지기 곤란하다. 또 현행 규정에서 대괄호로 부르는 '[ ]'는 *The Chicago Manual of Style*[1993:190]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11] 괄호 안의 괄호로 사용됨이 더 일반적이어서 그 명칭이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괄호 '( ), { }, [ ]'에 대해 남한에서는 1940년 안이래 현행 규정 이전까지 손톱묶음, 활짱묶음, 꺾쇠묶음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괄호 '( ), [ ]'에 대해 북한에서는 1966년 규정에서 반달괄호, 꺾쇠괄호, 1988년 규정에서는 쌍괄호, 꺾쇠괄호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필자는 이처럼 괄호를 대중소로 나누지 않고 따로 명명하는 방식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관점에서 1998년 개정안이 괄호 '( ), { }, [ ]'에 대해 괄호, 활괄호, 각괄호란 명칭을 사용한 것은 큰 진전이라고 할 만한다. 다만 '[ ]'는 전통적으로 꺾쇠 모양을 나타내고 또 꺾쇠괄호라고 불림이 일반적이라는 문제 제기도 있을 수 있으나 후술하겠지만 '〈 〉'라는 부호를 도입할 경우는 '꺾쇠'라는 명칭을 이 부호에 넘기고 '각괄호'라는 명칭을 사용함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12]

택하고 문장 부호 외에 인쇄상에 쓰이는 여러 부호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데 그 이유가 있는 듯하다.

10) 대괄호에 관한 규정 2항은 "묶음표 안에 또 묶음표가 있을 때에 쓴다"이다.

11) 다음 참조. 5.129 "Brackets should be used as parentheses within parentheses"

12) '[ ]'를 굳이 꺾쇠괄호로 부른다면 '< >'에 대해서는 마름모를 연상하여 마름표라고

현행 규정은 앞서 보았듯이 부호를 부류별로 묶고 이를 다시 세부 부호로 가르는 이중 체계를 택하였는데, 지나치게 체계를 중시하는 이러한 분류 방식은 'Ⅵ. 드러냄표' 밑에 '1. 드러냄표'만을 제시하는 불합리성을 안게 되었다. 더군다나 현행 규정은 대분류에 속하는 부호명에는 기계적으로 고유어 명칭과 한자어 명칭을 제시하여 'Ⅵ. 드러냄표[顯在符]'에서의 '顯在符'와 같이 실제 언어 생활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는, 그래서 사어라고 불러도 좋을, 용어까지 가져다 쓰는 궁색함을 보이고 있다.[13]

마지막으로 현행 규정은 세로쓰기에 대한 지나친 배려를 하여 언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현재의 문자 생활에서는 세로쓰기하는 경우를 찾아보기 힘든 데도 현행 규정은 세로쓰기를 위해 고리점, 모점, 겹낫표, 낫표를 따로 마련해 두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실제의 문자 생활에서 적잖이 쓰이는 겹낫표와 낫표는 규정에 충실하자면 가로쓰기에 쓰기 어렵게 되어 있다.[14] 또 현행 규정은 세로쓰기에 대한 부호의 제시도 철저하지 못해 쌍점이나 괄호 등의 규정에서는 세로쓰기에 쓰이는 부호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다. 1940년 안에서는 가로쓰기에 포갤점(:)을 쓰고 세로쓰기에 쌍점(‥)을 쓰도록 하였는데, 이와 비교할 때 현행 규정은 세로쓰기에서도 철저하지 못한 면을 보인다고 할 것이다.[15]

이상에서 우리는 현행 규정이 체계와 명칭의 측면에서 여러 가지의 문제를 안고 있음을 보았다. 따라서 이상의 논의는 앞으로 우리가 문장 부호에 관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방안은 '마름표'라는 명칭이 무척 생경하다는 약점이 있다.

13) 사실 '顯在符'라는 용어는 <표준국어대사전>에도 올라 있지 않다.

14) 이는 마치 고리점이나 모점을 가로쓰기에 쓰기 어려운 것과 같다. 또 현행 문장 부호 규정에 있는 낫표는 그 모양이 가로쓰기용과 달라 가로쓰기를 바탕으로 하는 '흔글'과 같은 문서편집기에서는 입력조차 할 수 없다.

15) 이런 점에서 1998년 개정안에서는 철저히 가로쓰기를 기준으로 규정을 만들고 세로쓰기를 위한 규정은 별도로 정하게끔 하였다. 가로쓰기와 세로쓰기를 함께 고려하는 현행 규정의 문제점을 깊이 인식한 것이다.

한 규정을 손질하고자 할 때 현행 규정의 틀을 그대로 유지한 채 세부 규정만을 덧붙이거나 보완하는 방식으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보여 준다고 할것이다.

3. 부호 추가의 문제

현행 규정과 이전 규정 및 북한의 규정을 비교하여 볼 때 현행 규정에서 새로 추가된 문장 부호는 가운뎃점(·)과 물결표(~)이고, 현행 규정에 없거나 빠진 대표적인 문장 부호는 머무름표/반두점/쌍반점(;)과[16] 인용표/꺾쇠표(≪ ≫)이다.

가운뎃점은 1933년 안에 등장해서 1958년 안까지 계속 문장 부호의 하나로 제시되었지만, 그것은 마침표의 한 용법으로 간주된 것이었고 그 용법도 "제임스·와트, 로스·엘젤레스"처럼 서양인의 동일 인명이나 지명 사이에 쓰이는 것이었다.[17] 그런데 가운뎃점에 대한 이러한 규정은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 일본의 규정을 모방한 것으로서 국어 현실에서는 불필요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서양인의 동일 인명이나 지명 사이에 쓰는 가운뎃점은 자연스레 안 쓰이게 되었다. 그렇지만 현행 규정에서는 명사를 병렬할 때 쓰이는 가운뎃점의 또 다른 기능을 중시하여 가운뎃점이란 문장 부호를 새로 추가하고 이를 쉼표에 소속시켰다.[18]

한편 쌍반점(;)은 1933년 안부터 문장 부호의 하나로 제시되다가 현행 규정에서 삭제되었다. 쌍반점은 쉼표와 비슷한 기능을 하나 길고 복잡한 문장에서 쉼표보다 상위 층위에 쓰임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우리말은 문장의 연결

16) '머무름표'는 1940년 안에서 사용했던 용어이고 '반두점'은 북한에서 1954년 규정 이래 사용하고 있는 용어이다.

17) 원래의 규정에는 제시된 용례가 없다.

18) 가운뎃점은 일본과 한국에서만 쓰이는 문장 부호로서 일본의 가운뎃점 역시 명사를 병렬할 때 쓰이는 것이 대표적인 용법이다.

관계나 그 내부 구조를 보여 주는 어미가 발달해 있어 영어에 비해 쉼표의 쓰임이 적고 또 쉼표의 하위 층위에는 가운뎃점도 쓸 수 있어 굳이 쌍반점을 도입하지 않아도 글을 쓰는 데 어려움이 없다. 이 점에서 쌍반점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문장 부호라며 쌍반점을 문장 부호의 하나로 도입하려는 일부의 논의는 국어 현실과 거리가 있다고 생각된다.[19]

1998년의 국어연구원 개정안에서는 꺾쇠표(〈 〉, ≪ ≫)와 낫표(「 」, 『 』), 밑줄표(___)를 새로 추가하고 있는데, 필자는 이러한 부호 추가가 매우 합당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꺾쇠표는 남한의 규정에서 제시된 바 없으나 실제의 문자 생활에서는 꽤 널리 사용되고 있다. 또 북한의 규정에서는 1950년 규정에서 괄호의 일종으로, 1954년 규정과 1966년 규정, 1988년 규정에서 인용표로 제시된 바 있다.[20] 따라서 앞으로는 꺾쇠표도 문장 부호의 하나로 인정하여 낫표나 따옴표를 쓸 자리에서 꺾쇠표도 함께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문자 생활에 편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낫표는 책의 제목이나 작품, 논문 등의 제목을 표시할 때 널리 쓰여 온 문장 부호이다. 그런데 현행 규정에서는 낫표를 세로쓰기에서 쓰는, 즉 세로쓰기에서 따옴표의 기능을 하는 부호로 정의하여 낫표의 쓰임을 현실과 동떨어지게 제약하고 있다. 낫표를 세로쓰기 부호로 정의한 것은 1933년 안 이래로 계속된 관습이나 지금은 이러한 규정 자체가 현실적으로 무시되는 처지에 있다. 따라서 앞으로 개정될 문장 부호 규정에서는 낫표도 가로쓰기에서 사용되는 문장 부호의 하나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4. 띄어쓰기의 문제

현행 문장 부호 규정이 띄어쓰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19) 국어정보학회(1996)에서 제시한 문장 부호 개정안에서는 쌍반점을 문장 부호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20) 꺾쇠표는 프랑스어나 이탈리아어, 일본어 등지에서도 인용 부호의 일종으로 쓰이고 있다.

현행 규정에서 가장 불만스러운 부분이다. 그러나 문장 부호 규정에서 띄어쓰기에 관한 내용이 필요함은 잘 인식되지 않아 여러 학자들이 참여하여 마련한 국어정보학회(1996)의 개정안에서도 띄어쓰기에 관한 내용이 없다. 그리하여 쌍점의 띄어쓰기를 예로 들자면 (2)와 같은 혼란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2) 가. 마침표: 문장이 끝났음을 나타낸다.
가′. 마침표 : 문장이 끝났음을 나타낸다.
나. 오전 10:20
나′. 오전 10: 20

요컨대 쌍점은 그 용법에 따라 앞뒤를 모두 띄지 않는 경우와 앞은 붙이고 뒤는 띄는 경우가 있는데 현행 문장 부호 규정에는 이에 관한 내용이 없어 실제의 언어 생활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띄어쓰기 규정이 필요한 문장 부호는 비단 쌍점에만 그치지 않는다. 빗금이나 줄표도 이와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다. 예컨대 빗금이 시의 인용에서 행이 바뀜을 나타낼 때에는 그 앞뒤를 띄어 씀이 일반적이나 '출렁거리다/출렁대다'처럼 대립되는 두 요소를 짝으로 묶을 때나 '80킬로미터/시간'과 같이 수량의 단위 등을 표시할 때에는 그 앞뒤를 붙여 쓴다. 그리고 줄표는 현행 규정의 용례를 보면 그 앞뒤를 띄어 쓰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The Chicago Manual of Style*[1993:185]에서는 줄표의 앞뒤를 붙여 쓰고 있다. 빗금과 줄표 역시 그 띄어쓰기를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5. 규정 내용의 문제

현행 문장 부호 규정은 엄밀성과 명료성의 측면에서 개선할 여지가 많다. 예컨대 쉼표를 "문장 안에서 짧은 휴지를 나타낸다"라고 정의한 것 등은 엄밀성의 측면에서 부적절한 것이며, 또 가운뎃점을 "같은 계열의 단어 사이에 쓴

다"라고 정의한 것이나 큰따옴표를 "특별 어구 따위를 나타낸다"라고 정의한 것 등은 명료성의 측면에서 부적절하다. 이익섭(1996)에서 잘 지적되었듯이 쉼표는 문장의 어떤 부분을 다른 부분과 분리시켜 그 문장의 문법 구조에 대한 정보를 드러내 주는 것이지 그것이 어쩌다 휴지와 일치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 자체가 휴지를 반영하는 기호는 아니기 때문이다.[21] 그리고 '같은 계열의 단어'나 '특별 어구'라는 표현은 매우 모호하여 어디까지를 같은 계열의 단어나 특별 어구로 볼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문장 부호 규정은 개별 문장 부호의 용법을 엄밀하고 명료하게 규정해야 할뿐더러 문장 부호가 겹칠 때, 특히 괄호나 따옴표가 다른 문장 부호와 함께 쓰일 때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규정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따옴표나 낫표로 묶이는 말에 괄호가 이어질 때는 괄호 부분을 문장 부호 안에 넣을지 뺄지에 대한 규정이라든지, 마침표가 따옴표나 괄호와 함께 쓰일 때 마침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규정 등이 새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22]

(3) 가. 『월인석보(月印釋譜)』
가′. 『훈민정음』(해례본)
나. 「3·1 운동」(1919)
나′. 「춘원」(6·25 때 납북)

(3)은 낫표와 괄호가 함께 사용된 예를 제시해 본 것이다. (3가)는 괄호 안의 내용이 앞의 내용과 같은 것이어서 그 전체에 낫표가 쓰였고 (3가′)과

---

21) *The Chicago Manual of Style*[1993:165]에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있다. "The comma · · · indicates the smallest interruption in continuity of thought or sentence structure"

22) 북한에서는 1966년 규정부터 인용표와 괄호 안에 다른 문장 부호가 쓰일 때의 용법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물론 *The Chicago Manual of Style*[1993]에도 이러한 경우에 대한 규정이 상세하다. 그리고 마침표가 따옴표나 괄호와 함께 쓰일 때의 처리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이익섭(1996) 참조.

(3나, 3나′)은 괄호 안의 내용이 앞의 것에 대한 주석이나 설명이어서 낫표가 괄호 부분을 제외하고 쓰였다.

현행 문장 부호 규정은 그 내용이 문자 생활의 지침이 되는 데 충분한가의 문제, 즉 규정의 충분성의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가운뎃점을 예로 들어 설명하자면 규정이 실제 글을 쓸 때 충분한 지침이 되는지가 의심스럽다.

(4) 가. 경북 방언의 조사 연구
가′. 경북 방언의 조사·연구
나. 한미(韓美) 정상 회담
나′. 한(韓)·이(伊) 정상 회담
다. **장미**(薔薇) 「명」 · · · 꽃은 품종에 따라 피는 시기와 색깔·모양에 많은 변이가 있음.
다′. **교목**(喬木) 「명」 줄기가 곧고 굵으며, 높이 자라는 나무. 소나무·향나무 따위.

(4가′)은 현행 규정에 제시된 예인데, 실제의 문자 생활에서는 (4가)처럼 가운뎃점을 쓰지 않는 사례가 많다. (4나)와 (4나′)은 관련 단어가 친숙한 것인지의 여부가 가운뎃점의 사용에 영향을 끼치는 예인데, 현행 규정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없다.[23] 그리고 (4다), (4다′)은 국어사전의 뜻풀이에서 뽑은 예인데, 가운뎃점이 쉼표와 구별 없이 쓰이고 있다. 이상의 용례는 지침의 불충분성 때문에 사람들이 가운뎃점의 사용에서 적잖은 혼란을 겪고 있음을 보여 준다.

현행 문장 부호 규정은 편리성의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현행 규정은 줄임표로 가운뎃점을 6점 찍게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1933년 안에도 존재하는 것으로서 오랜 전통을 보인다. 그러나 줄임표로 6점을 찍는 방

23) 일본의 가운뎃점 규정에는 "숙어적 어구를 이루는 경우에는 가운뎃점을 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라는 조항이 있다고 한다. 국어정보학회(1996:73) 참조.

식은 1937년 안에서 3점 찍는 방식으로 바뀌었다가 1940년 안부터는 줄임표[省略符]와 말없음표[無言符]로 세분되어 줄임표에는 3점을 말없음표에는 6점을 찍도록 되었다.[24] 그리고 북한에서는 1954년 규정에서 줄임표가 처음 등장하였는데,[25] 이때부터 3점 형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문장 부호의 역사에서 1933년 안과 현재의 규정이 다소 이질적인 것임을 보여 준다.

1933년 안에서 줄임표로 6점을 찍게 한 것은 일본의 문장 부호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는 생략 부호로 6점을 사용함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1937년부터 줄임표로 3점을 사용한 것은 6점이 우리의 언어 현실에 잘 맞지 않아, 그래서 언중들이 불편함을 느꼈던 데 그 이유가 있지 않나 생각된다.[26] 이런 점에서 국어정보학회(1996)의 개정안과 국어연구원의 1998년 개정안에서는 줄임표로 3점을 쓰게 하였는데, 이러한 처리는 줄임표로 3점을 쓰는 것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이요,[27] 또 줄임표로 6점을 쓰는 것이 언중들에게 불편함을 준다는 사실을 인식한 결과로 생각된다.

편리성과 관련하여 현행 규정에서 발견되는 또 다른 문제는 괄호에 관한 것이다. 현행 규정에서는 괄호 속에 괄호가 있을 때 바깥 괄호는 대괄호로 하고 안 괄호는 소괄호로 한다고 하였는데, 대괄호와 소괄호의 관계는 큰따옴표와 작은따옴표의 관계와 다르다는 점에서 이 규정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소괄호는 괄호의 대표격으로서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괄호이다. 그래서 우리가 괄호라고 하면 흔히 소괄호를 가리킨다. 반면에 대괄호는 다소 특수하

---

24) 줄임표에는 '석점을 둔다'라는 분명한 규정이 있으나 말없음표에는 6점으로 된 부호를 제시하고 그 용법을 설명하였을 뿐 6점을 찍는다는 명시 규정은 없다.

25) 1954년 규정에서는 '점선'이란 용어를 사용하였고 1966년 규정부터 '줄임표'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26) 현실적으로도 줄임표로 6점을 충실히 사용하는 곳은 교과서를 벗어나면 그리 많지 않다.

27) *The Chicago Manual of Style*[1993]에서는 더듬거리는 말의 표시나 생략 부호의 표시로 3점을 쓰게 하고 있다.

게 쓰이는 것으로서 그 쓰이는 자리가 꽤 제약되어 있다. 따라서 글을 쓸 때 괄호를 쓸 자리가 생기면 으레 소괄호를 친다. 그런데 현행 규정을 따르자면 괄호 안에 다시 괄호를 쓸 필요가 있을 때 앞으로 가서 소괄호를 대괄호로 바꾸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은 괄호의 대표격인 소괄호를 그대로 두고 다시 괄호가 필요할 때에는 대괄호를 쓰게 하는 방식에 비해, 다시 앞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무척 불편하다. 또 *The Chicago Manual of Style*[1993]에서 볼 수 있듯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식도 대괄호가 괄호 안의 괄호로 사용되는 것이라는 사실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1998년의 개정안에서는 괄호 안에 또 괄호를 쓸 때에 안쪽 괄호로는 각괄호(현행 규정의 '대괄호')를 쓰게 하였는데, 이는 매우 합당한 처리라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숨김표와 빠짐표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자 한다. 숨김표와 빠짐표는 현행 규정에서 각각 '××, ○○'와 '□□'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처리는 1940년 안 이래 숨김표는 '○○', 빠짐표는 '×'로 한 것과 달라진 것이다. 또 북한에서는 숨김표로 1966년 규정에서 '○○○(또는 □□□)', 1988년 규정에서 '○○○, ×××, □□□'를 사용한 것과도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나 숨김표와 빠짐표를 가르고 숨김표와 빠짐표에 각기 '××, ○○'와 '□□'를 사용한 현행 규정은 현행 규정 이전의 안이나 북한의 규정에 비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6. 결 론

어문 규정에 대한 개정은 옳든 그르든 간에 그간 익숙해진 표기 습관을 바꾸게 한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이 들고 큰 불편을 초래한다. 따라서 어문 규정은 학문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도 다수의 언중이 이를 따르고 있다면 바꾸지 않는 쪽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어문 규정이 문자 생활의 지침이 되지 못하거나 다수의 언중들에 의해 무시되는 경우라면 사정이 다르다. 이때에는 어문 규정을 개정하는 쪽이 오히려 사회적 비용을 덜 들이고 불

편을 줄이기 때문이다.

문장 부호 규정은 그 명칭과 체계가 현실과 동떨어진 면이 있고, 그 내용도 모호하거나 빠진 부분이 많아 실제로 문자 생활의 지침 노릇을 거의 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따라서 문장 부호를 개정하고 보완하는 일은 어떤 혼란을 초래하기보다 오히려 글을 쓸 때 어떤 부호를 어떨 때 써야 할지 헤매는 사람들의 고민을 덜어 주는 일이 될 것이다. 예컨대 '.'을 마침표라 하고 쉼표의 용법을 사례별로 분명히 밝히고 문장 부호의 띄어쓰기를 규정하고 실제로 널리 쓰이는 쓰이는 낫표와 꺾쇠표를 쓸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실생활에서는 자주 부닥치지만 규정에서는 빠진 부분을 보충하는 것이 어찌 혼란을 가져올 수 있겠는가? 이 점에서 문장 부호의 개정은 맞춤법의 개정과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우리는 문장 부호의 개정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 어문 규정을 개정할 때 으레 발생하는 불편과 반발이 문장 부호의 개정에서는 거의 예견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개정을 주저하거나 현행 규정의 틀을 유지한 채 땜질만 할 것이 아니다. 이번 기회에 언중들의 불편을 세세히 살펴 충분하고 철저하게 개정을 하는 쪽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그 지위도 '한글 맞춤법'의 부록에서 독자적인 '문장 부호법'으로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문장 부호에 관한 규정이 '한글' 맞춤법에 소속되어 있는 모습은 어딘지 어색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고영근 편. 2000.『북한 및 재외교민의 철자법 집성』. 역락출판사.
국어연구소. 1988.『한글 맞춤법 해설』. 국어연구소.
국립국어연구원. 1998. 문장 부호 개정안. 국립국어연구원.
국립국어연구원. 2001.『한국 어문 규정집』. 국립국어연구원.

국어정보학회. 1996.『간행물 양식과 문장 부호 실태 조사 및 표준화 방안 연구』. 문화체육부 연구보고서.

민현식. 1999.『국어 정서법 연구』. 태학사.

이익섭. 1996. 국어 문장 부호의 기능.『관악어문연구』21.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임동훈. 2002. 서평: 북한 및 재외교민의 철자법 집성과 조선어 연구 1, 2, 3.『고영근의 국어학 세계』. 삼경문화사.

한글학회. 1989.『한글 맞춤법 통일안』(1933~1980). 한글학회.

The Chicago Manual of Style, 14th ed. 1993.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